

일곱 살 고마작가의 창작 이야기

# 호랑이를 잡은

글·그림 이건우

## 사냥꾼



독버섯 먹은  
호랑이가  
꼬불꼬불한  
여우골에 갔다.

돌무덤 위에  
냉이와 옆에  
산철쭉이  
피어 있었다.  
그리고  
느티나무도  
있었다.



사냥꾼이 나무 뒤에 숨어서  
여우를 화살로 죽였다.



그리고 호랑이를 죽은 여우시체로  
유인하여 잡았다.



사냥꾼은 가족과 함께 사냥한 여우로  
고기구이를 해먹었다.

그리고 호랑이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어 입었다.





사냥꾼은 가족과 함께 다시  
즐거운 사냥여행을 떠났다.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을 쓰고 나서

처음 쓰는 이야기여서 약간 떨렸다.

그림까지 그리고 나니까 또 다른 책을 쓰고 싶다.

그림 그리고 색칠할 때 힘들었다. 이제 이복이 나오니 후련하기도 하다.

다음 이야기를 또 도전해 보려고 한다. 